

# ( '너' 와 함께 '당신' 을 즐겁게 해주는 '보기 드문 사람' )

옆에서 본 작가 김영하

라디오 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어느 작가가 출연 대기중인 이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프랑스 갈리마르 출판사로부터 출간 제의가 왔다는 것이다. 여기까지라면 크게 놀랄 것까지는 없고 축하할 일이다. 이미 해외에 번역, 소개된 그의 작품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의 말인즉, 자신이 습작으로 써놓았던 시를 불어로 번역해 출간하겠다는 제의를 받았다는 것이다. 너무나 진지한 태도에 믿지 않을 수도 없고, 곧이곧대로 믿기엔 의심스런 구석이 많고.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이빨새! 그 날은 만우절이었다.

출연자들을 '한 방 먹인' 작가 김영하는 SBS 라디오 <책하고 놀자> 진행자였고 나는 신간소개 코너에 매주 한 차례 출연중이었다. 그는 기본적인 틀과 각 코너에 배당된 시간을 지킨다는 점을 제외하면 사실상 대본 없이 진행했다. '아니 이렇게 방송해도 되나?' 하지만 익숙해지자, 꾸미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의 자연스런 흐름을 탈 줄 아는 그와 스튜디오에서 마주하는 건 큰 즐거움이 됐다. 마음 맞는 사람들이 스튜디오를 빌려 이야기 나누는 기분. 그렇다. 그는 방송인 아닌 뛰어난 방송인이었다.

그와 만나기 전까지 나는 문학작가와 직접 만나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세상 모든 고민을 혼자 짊어지거나 한 듯 진지하고 심각한 사람, 자발적인 고독 속으로 스스로를 밀어 넣는 사람, 부스스한 머리에 남에 대한 결레만 겨우 면할 정도의 옷차림을 한 사람. 내가 그려왔던 문학작가의 이러한 전형은 그와의 첫 만남에서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멋쟁이다.

'김영하, 그는 늘 무언가 말을 하고 있다' 고 말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와 만나 이야기 나누는 사람은 시계를 자주 봐야 한다. 다른 약속이 있다면 본의 아니게 늦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수다의 뜻은 '쓸데없이 말이 많음' 이지만 김영하의 수다는 쓸데없는 듯 하면서도 쓸데를 무궁무진 만들 수 있는 묘한 특징이 있다. 화제의 풍부함, 대화상대에 대한 배려, 적절한 유머, 어디로 갈지 모

르는 의외성의 재미. 그는 훌륭한 수다쟁이, 아니 이야기꾼이다.

그와 인사동에서 만나기로 약속하면 전시회를 같이 관람해야 하고 그의 미술비평을 들을 것을 각오하는 게 좋으며, 골동품 가게에서 그와 함께 한참을 구경해야 할지도 모른다. 또 그가 영화에 대한 관심이 각별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그가 본의 아니게 스포일러 구실을 할 수 있으니 말이다.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그에게 조언을 부탁하는 게 좋다. 촬영에 관한 조언도 덩으로 구할 수 있다. 그는 미술, 영화, 음악, 공연예술, 디지털 문화 등 우리 시대의 무척이나 다양한 문화를 늘 호호한다. 그는 욕심 많은 문화 소비자다.

그와 비교적 오래 친분을 유지하는 사람이라면 대학노트 모양의 작은 수첩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그의 지인들끼리는 '일수금 찍는 수첩' 으로 통하지만, 그가 정말로 일수금 찍으라고 수첩을 주는 건 물론 아니다. 작고 싼 물건이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주는 게 기분이 좋기 때문이란다. 그가 직접 구운 음악 CD를 받을 수도 있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웬만한 컴필레이션 음반보다 낫다. 그는 인정人情을 갈무리할 줄 아는 좋은 사람이다.

방송인 아닌 뛰어난 방송인, 멋쟁이, 훌륭한 이야기꾼, 욕심 많은 문화 소비자, 인정을 갈무리할 줄 아는 좋은 사람. 적어도 내가 지금까지 겪은 그의 면모들이다. 요약하면 이렇다. 그는 스스로 즐겁게 살려 하고 그런 가운데 주위 사람들도 즐겁게 하는 보기 드문 사람이다. **표정훈**

표정훈 | 출판평론가

